

경기도, 19~20일 평양공동선언 기념 'DMZ 포럼'

OBS경인TV

경기도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19~20일 고양시에 있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에서 'DMZ 포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비무장지대(DMZ)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남북 및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첫날인 19일은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 크로스디엠지(WCD)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3명이 기조연설을 한 뒤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특별세션1은 '평양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주제로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박지원 국회의원, 조셉 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한다.

2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특별세션2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3이 진행된다.

포럼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한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에서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평화와 관련한 국제적 담론 형성, DMZ의 생태·관광·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의제 설정, 한반도 비핵화 등 국가적 이슈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

OBS경인TV webmaster@obs.co.kr

경기도, 19~20일 평양공동선언 기념 'DMZ 포럼'



DMZ, 한국인과 외국인 '온도차' 뚜렷



【영커】

비무장지대, DMZ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한 반면, 외국인들은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평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미 정상이 함께 한 모습에 DMZ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냉전의 산물인 DMZ는 무엇일까.

경기연구원이 한국인 500명, 중국과 독일인 각 150명 등 800명을 설문조사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먼저, DMZ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한국인은 '북한', 중국인은 '평화', 독일인은 '모르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DMZ의 가치에 대해선 한국인은 '생태자원'을 가장 중시한 반면, 외국인들은 '전쟁과 분단'을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동호 / 경기도 수원시 : 사람 손이 안 타고 잘 관리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 환경을 유지하면서 통일된다면 관광쪽으로...]

[압둘 라쭘 / 파키스탄인 : DMZ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땅을 갈라놓고 있잖아요.]

DMZ 정책으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나타내, 국제적 명소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 /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 국제적인 관광지로 브랜딩할 수 있게 관련된 이벤트라든가, 홍보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 사업을 위한 'DMZ 관리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이종진>

“DMZ, 생태평화공원 등 보존에 중점 뒤야”

경기연구원 '내외국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
韓 “생태 자원” 獨 “분단 상징” 中 “전쟁상징” 응답 많아



세계적으로 마지막 냉전 유산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의 효용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26일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DMZ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사점을 담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 DMZ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전선(6.8%), 남북분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북한(8.6%), 남북분단(8.4%), 지뢰(8.4%)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인은 평화(12.0%), 독일인은 '모르겠다'(10.7%)를 최우선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DMZ에 대한 가치 요소 8개(생태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경제자원, 분단상징, 전쟁상징, 평화상징, 남북통합상징)를 선정해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분단상징(75.5점)이 가장 높았다. 경제자원(62.0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은 생태자원(82.4점)을 월등히 높은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중국인은 전쟁상징(71.2점), 독일인은 분단상징(73.9점)을

높게 평가했다. DMZ 관련 정책 인지도는 일반적인 정책 인지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DMZ에 관한 관심을 반증했다.

DMZ 관련 정책 가운데 '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52.1%로 가장 높고, '감시초소 시범 철거'와 '평화의 길 조성'도 5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DMZ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100점 만점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80.5점)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DMZ 활용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자연보호 우선'(54.4%)에 비해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경제개발 절충'(48.7%)을 선호했다. 이는 동서독 접경지역을 그린벨트도 활용한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응답자 75.8%가 DMZ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방문율(50.4%)에 비해 상당히 높아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했다.

이정훈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자연보호를 중시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 DMZ의 비전은 보전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DMZ가 '독특하다'는 응답이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브랜드 자산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DMZ가 가진 차별성과 독특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DMZ를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브랜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DMZ의 실체를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구체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칭)DMZ 관리청을 설치하고 DMZ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정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김문기 기자 kmg1007@

경인일보

DMZ보는 시선... 한국인 “생태자원” 외국인 “분단 상징”

한국인과 외국인이 DMZ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조명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인은 '생태 자원'으로 DMZ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전쟁·분단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모두 800명을 대상으로 DMZ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담아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냈다.

조사 결과, DMZ에 대한 연상 이미지

로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전선'(6.8%), '남북분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북한'(8.6%), '남북분단'(8.4%), '지뢰'(8.4%)순으로 응답했지만, 중국인은 '평화'(12.0%)를, 독일인은 '모르겠다'(10.7%)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생태계 보고 DMZ 가치는?

내국인 “생태 자원”... 외국인 “전쟁·분단의 상징”

경기연구원, 韓 500명·中 150명·獨 150명 설문

“DMZ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은 어떻게
가?”

DMZ가 세계적으로 마지막 냉전 유산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DMZ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사점을 담아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DMZ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전선’(6.8%), ‘남북분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북한’(8.6%), ‘남북분단’(8.4%), ‘지뢰’(8.4%)순으로 응답했지만, 중국인은 ‘평화’(12.0%)를, 독일인은 ‘모르겠다’(10.7%)고 응답했다.

DMZ에 대한 가치 요소 8개(생태 자원, 문화 자

원, 관광 자원, 경제 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남북통합 상징)를 선정해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분단 상징’(75.5점)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자원’(62.0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은 ‘생태 자원’(82.4점)을 월등히 높은 요소로 꼽았지만, 중국인은 ‘전쟁 상징’(71.2점), 독일인은 ‘분단 상징’(73.9점)을 높게 평가했다.

DMZ 관련 정책 가운데 ‘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52.1%로 가장 높고, ‘감시초소 시범 철거’와 ‘평화의 길 조성’도 5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DMZ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100점 만점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80.5점)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DMZ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자연보호 우선’(54.4%)에 비해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경제개발 절충’(48.7%)을 선호했다.

한편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응답자 75.8%가 DMZ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방문률(50.4%)에 비해 상당히 높아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선호기자

DMZ하면 떠오른 이미지... 韓 ‘북한’ 中 ‘평화’

경기연구원 한국인·외국인 인식조사
독일인 ‘모르겠다’ 최우선 응답
DMZ 가치요소 ‘분단상징’ 최고

마지막 냉전 유산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MZ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사점을 담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 DMZ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전선’(6.8%), ‘남북분

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북한’(8.6%), ‘남북분단’(8.4%), ‘지뢰’(8.4%)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인은 ‘평화’(12.0%)를, 독일인은 ‘모르겠다’(10.7%)를 최우선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DMZ에 대한 가치 요소 8개(생태 자원, 문화 자원, 관광 자원, 경제 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남북통합 상징)를 선정해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분단 상징’(75.5점)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자원’(62.0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은 ‘생태 자원’(82.4점)을 월등히 높은 요소로 꼽았지만, 중국인은 ‘전쟁 상징’(71.2점), 독일인은 ‘분단 상징’(73.9점)을 높게 평가했다.

DMZ 관련 정책 중에는 ‘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52.1%로 가장 높았고, ‘감시

초소 시범 철거’와 ‘평화의 길 조성’도 50% 이상 나타났다.

특히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80.5점/100점 만점)이 DMZ 관련 정책 중의 여부 질문 중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응답자 75.8%가 DMZ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인 방문률(50.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독일인들이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가 가진 차별성과 독특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브랜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DMZ정책의 비전은 보전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면서 (가칭)DMZ 관리청 설치와 DMZ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정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재수기자

9·19 평양선언 1주년...도, 'DMZ 포럼' 개최

19~20일 킨텍스에서 열려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DMZ 포럼'을 개최한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선 비무장지대(DMZ)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남북 및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첫날인 19일은 이재명 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

타이념 등 3명이 기조연설을 한 뒤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특별세션1은 '평양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주제로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박지원 국회의원, 조셀운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한다.

이어 2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특별세션2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3이 진행된다.

포럼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DMZ 가치는?... 한국인은 '생태자원' 독일인은 '분단상징'

경기연구원 '내·외국인 인식 조사'

세계적으로 다지다 냉전 유산이자 생태계다 보고인 DMZ의 무장지대의 효용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20일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00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가치와 가치'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DMZ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북한 > 휴전선 > 지뢰 &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 정책 가장 높은 등의 받아 DMZ 활용에 대한 한국인은 '자연보호 우선' 손꼽아

조사 결과 DMZ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휴전선' 6.8%, '남북분단' 6.0%, '지뢰' 6.4%, '평화' 5.0% 순이 나왔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북한' 6.8%, '남북분단' 6.4%, '지뢰' 6.4% 순으로 응답했고, 중국인은 '평화' 11.0%, 독일인은 '무엇보다도 DMZ를 왜곡선으로 남게 하여' 6.0%였다.

자 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남북통일 상징 등이로 인지에 특정한 DMZ 가치 요소에 대한 '분단 상징' 50.0%인 반면에 75.0%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 자원' 22.0%에만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은 '생태 자원' 42.0%를 꼽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국인은 '전쟁 상징' 71.0%, 독일인은 '분단 상징' 71.0%를 꼽아 평가했다. DMZ 관련 정책 지지도는 일반적인 정책 지지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MZ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DMZ 관련 정책 가운데 '평화공화국 조성 계획'이 52.1%로 가장 높고, '군사보안 강화'와 '평화의 길 조성'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DMZ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68.0%로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 80.0%가 가장 높은 동의율이었다. DMZ 활용에 대한 한국인은 '자연보호 우선' 74.4%를,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경제개발' 58.7%를 선호했다. 이는 동서부 질문사항을 보면 DMZ 관련 정책 방향에서 72.0%를 보여준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85.0%

75.0%가 DMZ를 방문, 중국인 방문율 6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태도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어평은 선임연구원인 "한국인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고려해 DMZ의 비전적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MZ가 가진 차별성과 특색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브랜딩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기호일보

2019년 09월 16일 (월)

종합 01A면

내외국인 'DMZ 인식자' 보니

한국인 '생태' 보존가치 독일인 '분단' 관광지로

마지막 냉전 유산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의 효용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를 바라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26일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MZ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사점을 담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 DMZ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전선'(6.8%), '남북 분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한국인은 '북한'(8.6%), '남북 분단'(8.4%), '지뢰'(8.4%) 순으로 답했다. 중국인은 '평화'(12.0%)를, 독일인은 '모르겠다'(10.7%)를 최우선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DMZ의 가치요소를 87개 생태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경제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남북 통합 상징으로 추려 물었다더니 '분단 상징'(75.5점/100점 만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인은 '생태자원'(82.4점)을 월등히 높은 요소로 꼽았지만 독일인은 '분단 상징'(73.9점), 중국인은 '전쟁 상징'(71.2점)을 높게 평가했다.

DMZ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질문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80.5점)을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평화누리길 조성'(71.9%), '평화공원 조성계획'(70.3%), '평화의 길 조성'(68.9%) 순으로 답했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응답자 75.8%가 DMZ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방문율(50.4%)에 비해 상당히 높아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훈 경기연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인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DMZ의 비전은 보전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고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DMZ에 대해 '독특하다'는 응답이 67.2점으로 브랜드 자산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DMZ가 가진 차별성과 독특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DMZ를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브랜드링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DMZ 관리청을 설치하고 DMZ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정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용섭 기자 ksp@khiolbo.co.kr